

호남중심 통합신당, 4년 전 녹색바람 재현할까?

손학규+박지원·천정배·정동영, 민주당과 경쟁구도

대선주자·새정치 공백 속 도로 '호남당' 극복과제

21대 총선을 불과 2달여 앞두고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본격적인 제3지대 통합에 나섰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뭉친 이들 통합신당이 4년전 총선에서 녹색돌풍을 일으켜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할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은 10일 각 당 협상 대표들이 참여하는 통합 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신당 당명과 지도부 구성 방안, 강령, 당헌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 정당과의 통합이 급선무가 됐다"며 "대안신당, 평화당과의 통합 작업을 시작해 가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15일 이전 통합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한 기축이 되면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 7명을 제외 하더라도 민주평화당 4명, 대안신

당 7명을 합쳐 20석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외에도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분당 과정에서 무소속으로 남은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 최근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한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의 합류 여부도 관심사다.

원외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접촉해 온 청년 중심의 미래세대와 평화당이 연대를 선언한 소상공인세력 등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조직력을 갖출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신당은 손학규 대표와 함께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 주승용 등 지난 총선에서 호남을 싸늘이 하다시피 한 국민의당 주축 세력들이 다시 모여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성일 (사)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운영위원은 "4년전 국민의당의 효과로 지금의 민주당은 전국정당

화를 이룬 것"이라며 "양당제는 서로 승자독식을 위해 싸우기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통합신당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둬 다당제가 실현된다면 대립의 정치가 사라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통합신당이 넘어야 할 산들은 넘쳐난다.

우선 4년 전과 비교해 당시 '새정치'로 대변되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대선주자급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변화와 세대교체를 바라는 지역민의 여론과 달리 호남 현역 의원들이 간판만 바꿔 달고 또 다시 금배지를 노리는 점도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전국 정당인 아닌 '호남표'만을 공략하기 위한 급조된 정당이라는 시각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도로 '호남당'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한다는 각오다.



왼쪽부터 유승업 대안신당 인재영입위원장,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로 호남당이 뭐가 나쁘냐"면서 "박근혜 국정농단을 정당화하는 도로 'TK당'은 있으면서 도로 '호남당'을 나쁘다고 하는 건 자꾸 호남을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호남지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 3.1%)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의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8%, 민주평화당 2%, 바른미래당 1%, 새로운 보수당 1%, 안철수신당(가칭)

4%, 자유한국당 2%, 정의당 8%, 기타 2%, 없음 20%, 모름/응답거절 2%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다만 여론조사에서 나오듯 '지지정당이 없다'거나 '모름/응답거절' 등 무당층이 22%로 나온 점은 향후 통합신당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지지율로 보인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도로 국민의당이라는 인식 때문에 민주당 대세라는 전체적인 판세는 바뀌지 않겠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현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짜여진다면 호남에서도 대안의 선택지로 통합신당에 눈을 돌리려는 분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구례지역 위 고위 인사들이 '우윤근 전 의원을 내려 보내 달라'고 중앙당에 건의해 논란을 자초했다. 사진은 2016년 4월 11일 광양시 중앙동 사랑병원 사거리를 찾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윤근 후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우윤근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을 달라?”

광양·구례 고위직 인사들, 건의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출마자들에게 대한 공천적합도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고위직 인사들이 '우윤근 전 의원을 내려 보내 달라'고 중앙당에 건의해 논란을 자초했다.

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와 구례군의 전·현직 시장과 군수, 의장들이 이번 총선에 '지역발전'을 위해 우윤근 전 의원을 내려 보내 달라'는 건의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서기동 전 구례군수,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 김송식 구례군의회 의장, 박노신 전 광양시의회 의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등 민주당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회 고위직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감추고 있지만 '총선 승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큰 인물이 필요하다'며 우윤근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우회적으로 건의했다는 후문이다.

우 전 의원의 전략공천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예비후보 캠프들은 "정치가 장난이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제야 '우 전 의원을 내려 보내 달라'는 것은 전략공천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냐"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은 뭐가 되는냐. 정치가 장난이나,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다"고 반발했다.

유승민, 한국당과 신설합당 제안...보수통합 '급물살' 타나?

유승민, 총선 불출마 선언

4·15 총선이 67일 앞으로 다가온 9일 보수통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통합 논의를 이어온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한국당과 신설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그동안 당대합 협상에서 통합 논의를 해왔으나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채 유승민 위원장의 이날 합당 선언이 나왔다. 양당의 공동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안'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한국당이 신설합당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 합당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합당에 여전히 남은 숙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보수재건을 위한 결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제는 탄핵 문제다. 유 위원장은 보수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변화가 없는 한국당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문제는 한국당이 유 위원장의 '신설합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다. 황 대표 등 한국당은

새보수당이 통합의 1순위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등 범보수진영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새보수당 당 관계자는 "신설합당을 안 받으면 흡수통합은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그만 놓아달라, 25년간 할 만큼 했다”...힘지출마 거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9일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합지 출마 요구에 대해 "지난 25년간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는 내 정치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출마"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나는 승부의 순간, 단 한 번도 머뭇거리거나 비겁하게 회피하지 않았다"며 "당 해체를 막기 위해 절망적이었던 탄핵 대선에도 당의 요구에 따라 경남지사를 중도 사퇴하고 출마해서 당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5년간 흔들림 없




이 당을 지켜온 사람은 효수(梟首,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형벌)하겠다고 모욕하고 정치 입문 1년밖에 되지 않고 당에 아무런 공헌한 바도 없는 사람은 꽃가마 태워 모시면서 나는 들러리나 서라고 요구한다"며 "탄핵 때 탄핵 찬성하고 당을 뛰쳐나간 사람을 당근을 주면서 다시 불러 들이는 일이 화제가 되는 정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